변태 교사… 투신 학생… 학폭 난무… 우울한 학교

교실에서 여제자를 성추행한 파렴치한 교사가 경찰에 붙잡히는가 하면, 공부에 대한 중압감을 견디지 못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 또래 학생에게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은 '지속적 괴롭힘'을 당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지역 중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서글픈 일들이다.

제자에 음란 강요 교사 영장 검토

◇제자 성추행 '짐승'같은 교사=광주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29일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음란행위를 시킨 혐의(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주시 모 중학교 교사 김모(40)씨를 입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교실, 교무실, 학교 계단과 자신의 승용차 안 등에서 여학생 2명의 몸을 만지거나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김씨가 카카오톡으로 여제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김씨의 범행은 학생들에게 피해 내용을 전해들은 상담 교사가 학부모에게 통보하면서 드러났다. 한편, 광주시 교육청은 자체 조사결과 내용을 토대로 해당 학교 법인에 파면을 요구했다. 김씨는 이 학교에서 5년 전부터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3년 전 정교사로 임용됐다.

공부 스트레스 중3 아파트서 자살

◇공부 스트레스에 중학생 투신=29일 새벽 0시2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모 아파트 화단에 A(15·중 3년)군이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119구조대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군이 가족과 함께 TV를 시청하다 방에 들어간 뒤 새벽에 아파트 20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군이 "공부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난 시험기간만 되면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는 내용이 적힌 메모를 남긴데다, 이번주부터 중간고사가 시작되는 점 등으로 미뤄 공부에 대한 중압감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가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또래 수차례 때린 중학생 입건

◇자존심 긁었다, 또래에게 폭력=광주서부경찰은 29일 같은 반 학생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로 김모(14·중 2년)군을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24일 오전 8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자신의 중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인 B(14)군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경찰에서 김군은 "카카오 톡에서 B군이 말을 받아치는 등 자존심을 긁었고 학교에서도 자신을 피해다녀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특히 조사 과정에서 "B군이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고 있다"는 제보 전화가 걸려온 점에 주목,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지속적 괴롭힘' 여부를 놓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나원참 〈8806〉 김종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전격 소환 조사

검찰 "몇번 더 부를 것"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9일 오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전격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을 오전 10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흘 전인 지난 26일께 원 전 원장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원 전 원장은 지난달 이미 출국금지됐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조사로 다 되지는 않을 듯하다"며 앞으로 몇 번 더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추가로 몇 차례 더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원 전 원장은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으며 수사팀 검사 2명이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신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검사 중 한 명은 경찰이 수사한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지휘했던 검사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작업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민주통합당이 공개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 어떤 배경과 의도에서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 금지)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등에 의해 고발됐다.

/연합뉴스

명품 야구장 기원 29일 광주시 북구 임동에 조성중인 광주 새 야구장 공사현장에서 수창초등학교와 대성초등학교 소속 야구 꿈나무, 시민 등 150여 명이 명품 야구장 건설을 기원하며 잔디 씨를 파종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너희 때문에 교도소" 노점상에 상습 폭력

광주 북부경찰은 29일 술을 마시고 시장 노점상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56)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광주 북구 각화동 농산물 공판장에서 흉기를 지니고 다니며 상인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하고 이를 말리던 박모(58)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전치 7주 상당의 상해를 입히는 등 7차례에 걸쳐 상인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장 상인들을 괴롭히고 무면허 운전 등을 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김씨는 지난해 12월 출소 후 또다시 농산물 공판장과 재래시장 등에서 "너희들 때문에 징역 살고 나왔다"며 협박해 왔다.

김씨는 특히 노점상을 폭행하거나 돈을 지불한 후 다시 빼앗는 식으로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송기숙 교수 등 '교육지표 사건' 재심 무죄

광주지법

유신체제 당시 '전남대 교육지표 사건'으로 구속된 송기숙(78) 전남대 명예교수와 성내운(1989년 사망) 전 연세대 교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신현범)는 29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된 송 교수 등 8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송 교수, 성 전 교수를 비롯해 류연창·박형중·양희승·류재도·안철·이철우씨 등이다. 최근 이 사건 연루자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과 대통령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와 무죄 선고는 예견됐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했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라며 "별도의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오늘 선고하겠다"고 밝힌 뒤 10분여 만에 선고를 마쳤다. 검찰도 선고에 앞서 무죄를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무죄 선고에 박수로 환영했지만, 건강이 나빠져 생년월일이나 주소 등을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한 송 교수의 가족들이나 일부 피고인들은 무덤덤해하기도 했다.

▲전남대 교육지표 사건=1978년 6월27일 전남대에서 김득진·김정수·김현곤·명노근·배영남·송기숙·안진오·이석연·이방기·이홍길·홍승기 등 교수 11명이 민주교육 헌장을 비판하는 '우리의 교육지표'를 발표한 것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교수 11명은 모두 해직됐으며, 이 사건과 관련, 송 교수와 성 전 교수가 구속됐다.

법원은 지난 2월에도 관련 피고인 9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

홍이식 화순군수, 재판 지연 "답답하네"

재판부 변경·엇갈린 증언으로 1심 선고 미뤄져

법관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 증인과 당사자 간의 엇갈린 증언 등으로 인해 홍이식 화순군수의 1심 선고가 미뤄지고 있다. 사건은 폭증하고 법관 수는 적은 재판시스템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단체장이나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등 판결에 따른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집중심리를 통해 신속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29일 광주지법, 지역 변호사 업계 등에 따르면 홍 군수는 지난해 12월13일 뇌물과 불법 선거자금 등 모두 83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수뢰 후 부정처사,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으나 담당재판부는 5개월째 1심 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9일 첫 공판 이후 2월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지난 3월20일과 4월17일 현 재판부 주도로 2차례 공판이 열렸다.

그러나 홍 군수의 기소 사실 부인, 핵심 증인 불출석 등으로 인해 사건의 실체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구속기간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고, 필요한 경우 2차에 한해 갱신을 가능하도록 해 모두 6개월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상당수 형사재판의 일정이 늦춰지면서 사실상 2개월로 한정한 구속기간도 법조계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6개월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인사철이 닥치면 기존 재판부는 기간 내에 자신이 선고하지 못할 경우 신경을 쓰기 어렵고, 신임 재판부는 사건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내부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범서방파 납치·폭행 조폭 4명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폭력조직 '범서방파'의 행동대장 나모(48)씨를 납치·감금해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 등)로 강모(29)씨 등 조직폭력배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강씨 등에게 범행을 지시한 호남의 한 폭력조직 부두목 조모(54)씨와 진해의 다른 폭력조직 부두목 정모(47)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3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남의 한 카페로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한 뒤 쇠사슬과 나일론 끈, 청테이프 등으로 묶고 지갑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두목 조씨는 지난 1월 초 평소 알고 지내던 나씨에게 "명절도 다가오는데 도박장에 '기술자'를 투입해 도박을 하고 이득이 나면 나눠 갖자"고 접근해 납치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불법체류 필리핀인 검거

갯바위에 은신하던 불법 체류 필리핀인 등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29일 완도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밤 9시께 완도 여서도 갯바위에서 불법 체류 필리핀인 A씨와 알선책 B씨를 붙잡았다.

알선책 B씨는 제주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된 A씨를 낚시 어선에 태워 완도로 나온 뒤 서울로 이동시키려 한 혐의다.

해경으로부터 A씨를 인계받은 광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조사후 강제 추방할 예정이다.

/완도=정은조기자 · 서부취재본부장

고속버스 배송 필로폰 유통

쌍나팔

○…순천경찰서은 29일 고속버스로 필로폰을 배송받아 유통한 김모(56)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26일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류봉투에 담긴 필로폰 4.5g(500여명 투약분)을 고속버스 수하물 배송을 이용하거나 직접 건네받아 지인 2명에게 팔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

○…경찰은 김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람을 쫓는 한편,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한 필로폰 유통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계>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2타경 32766	1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150번길11,103동 3층 302호[운암동,미라보아파트] 71.715㎡	아파트	102,000,000 102,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2타경 32438	1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238-2 275㎡[현황:대및일부도로]	대	151,129,980 151,129,980	일괄매각.제시외 건물포함.임차인 있음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272번길23 65.78㎡ 부속건물 광[현황:확인불능] 9.25㎡ 제시외 화장실 등 21.8㎡	단독주택		
2012타경 34359	1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1-4 209.1㎡	대	380,884,020 380,884,020	일괄매각.제시외 건물포함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8-1 [현:일부조적조함석지붕현:점포] 105.42㎡ 부속건물 문간[현:문간 및 변소] 10.57㎡ 욕탕[현:세면장및창고] 8.92㎡ 제시외 창고 2.6㎡	단독주택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12타경 35758	1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101 광영연립주택 3층 308호 60.27㎡[토지만에관한별도등기는 영광군의근저당권설정으로변제로말소됨]	다세대	40,000,000 40,000,000	
[대지/임야/전답]					
2012타경 15822	1	나주시 다시면 송촌리 1002 2112.8㎡	답	23,240,800 23,240,8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33035	1	광주광역시 광산구운남동 367 281㎡[공유자백지경지분562분의99전부][타인소유매각외건물존재함]	대	20,790,000 20,790,000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제한
2012타경 33271	1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444-20 266㎡[현:도로]	대	36,974,000 36,974,000	
	2	동소 444-43 359㎡[현:도로]	대	49,901,000 49,901,000	
2012타경 34878	1	화순군 남면 다산리 112-1 1289㎡[공유자 김정희지분9분의3분및공유자이재문,동이재영,동이재민각지분9분의2전부]	전	2,964,700 2,964,700	분묘소재로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35130	1	나주시 다도면 마산리 124 364㎡	전	26,812,600 26,812,6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125 1232㎡[물건번호1:수목포함평가]	전		
2012타경 35758	2	영광군 법성면 삼당리 867-7 4202.3㎡	답	39,921,850 39,921,85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2타경 35413	1	나주시 다시면 신광리911-4 1691㎡[현:대]	근린시설	1,329,076,680 1,329,076,680	일괄매각.제시외 건물포함
		나주시 다시면 영산로4952 지하1층 109.14㎡ 1층348.84㎡ 2층333.72㎡ 3층333.72㎡ 4층333.72㎡ 5층198.60㎡ 제시외 통로 등 182.34㎡ 기계기구목록참조	숙박시설, 근린시설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매각기일 : 2013. 5. 14. [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3. 5. 21. [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ㅁ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3. 4. 30.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용민